

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(잠정) 발표

- 2024년 초 상승했던 연체율은 점차 안정화, 유동성도 계속 높은 수준 유지, 손실 발생에 대비해 건전 가계대출 확대와 경영효율화 등을 지도
- 2025년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실채권 정리, 부실금고 합병과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건전성 관리 지속

□ 행정안전부는 1천 276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4년 영업실적(잠정)을 발표했다.

○ (재무현황) 총자산은 2024년 말 288조 6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조 6천억 원(0.6%) 증가했고, 총수신은 258조 4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3조 5천억 원(1.4%) 증가했다.

- 총대출은 183조 7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△4조 4천억 원(△2.3%) 감소했는데, 기업대출(107조 2천억 원)은 △2천억 원(△0.2%), 가계대출(76조 5천억 원)은 △4조 2천억 원(△5.2%) 감소했다.

○ (자산건전성)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6.81%로 6월 말 대비 △0.43%p 하락했다.

* 전체연체율 : ('23년 말) 5.07% → ('24.6월 말) 7.24% → ('24년 말) 6.81%

○ (자본적정성) 순자본비율은 8.25%로 2023년 말 대비 △0.35%p 하락했으나, 6월 말 대비로는 0.04%p 상승했으며 최소규제비율(4% 이상) 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.

○ (손익현황) 손익은 1조 7천 382억 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, 이는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* 적립 비용(1조 6천억 원)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했다.

*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

※ [붙임] 2024년도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(잠정) 참고

【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】

- 2024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,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등도 지속되었으나,
 -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는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,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.
- 연초 전 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,
 - 목표관리, 연체채권 매각 등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 결과, 연말 연체율이 6월 말보다 하락하는 등 점차 안정화되었다.
- 예수금은 확고히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유동성은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 - * (예수금) '23년말 254조 8천억원 → '24.6월 259조 9천억원 → '24년말 258조 4천억원
(가용유동성) '23년말 57조 2천억원 → '24.6월 71조 8천억원 → '24년말 68조 8천억원
 - 다만, 향후 금리변동과 상호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따른 예수금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.
- 그동안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고 적극적으로 연체채권을 매각한 결과 2024년 순손실이 발생했으나,
 -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건전 가계대출 확대와 사업예산 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왔으며, 순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- 2025년에도 경기 하방 위험 증대에 따른 어려운 경영 여건이 예상되지만,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.
 - 새마을금고법 시행(2025.7.8.)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, 향후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며,

○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해 우량화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한편,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금융감독원이 연 2회 상호금융권 경영공시 내용을 통합·정리해 영업실적(잠정)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같이, 행정안전부도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경수 (044-205-3941)
		담당자	사무관	조성조 (044-205-394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※ 본 자료는 '24년 말 기준 영업 중이었던 1,276개 금고의 잠정치로서 향후 금고별 결산 과정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

1. 재무현황

□ **(총자산)** '24년말 288.6조 원으로 '23년말(287.0조원) 대비 +1.6조원 (+0.6%) 증가 ※ '24.6월말(288.9조원) 대비로는 △0.3조원(△0.1%)

- 총대출은 183.7조 원으로 '23년말(188.1조원)대비 △4.4조원(△3.9%) 감소
 - 기업대출(107.2조원)은 '23년말(107.4조원) 대비 △0.2조원(△0.2%),
 - 가계대출(76.5조원)은 '23년말(80.7조원) 대비 △4.2조원(△5.2%) 감소

□ **(총수신)** 258.4조 원으로 '23년말(254.9조원) 대비 +3.5조원(+1.4%) 증가

주요 재무현황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'23년말(A)	'24.6월말	'24년말(B)	증감(B-A)	증감률
총자산	287.0	288.9	288.6	+1.6	+0.6
(총대출)	188.1	180.8	183.7	△4.4	△2.3
기업대출	107.4	105.4	107.2	△0.2	△0.2
가계대출	80.7	75.4	76.5	△4.2	△5.2
총부채	266.5	270.1	269.4	+2.9	+1.1
(총수신)	254.9	259.9	258.4	+3.5	+1.4

2. 자산건전성

□ **(연체율)** 전체 연체율은 6.81%로 '23년말(5.07%)대비 +1.74%p 상승

- 기업대출 연체율은 10.41%로 '23년말(7.74%)대비 +2.67%p 상승
- 가계대출 연체율은 1.75%로 '23년말(1.52%)대비 +0.23%p 상승

※ 다만, '24.6월말 대비 '24년말 전체 연체율은 △0.43%p,
기업대출 연체율은 △0.74%p, 가계대출 연체율은 △0.02%p 하락

연체율 현황

(단위 : %, %p)

구 분	'23년말(A)	'24.6월말	'24년말(B)	증감(B-A)
연체율	5.07	7.24	6.81	+1.74
기업대출	7.74	11.15	10.41	+2.67
가계대출	1.52	1.77	1.75	+0.23

□ **(고정이하여신비율)** 9.25%로 '23년말(5.55%)대비 3.70%p 상승

□ **(대손충당금비율)**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3.73%로 '23년말(106.13%) 대비 △2.40%p 하락

※ 다만, 이는 부동산·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(7월부터 1.1배)이 요적립액(분모)에 반영된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, '24.6월말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비율은 110.27%

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비율 현황

(단위 : %, %p)

구 분	'23년말(A)	'24.6월말	'24년말(B)	증감(B-A)
고정이하여신비율	5.55	9.08	9.25	+3.70
대손충당금비율	106.13	105.61	103.73	△2.40

3. 자본적정성

□ **(순자본비율)** 8.25%로 '23년말(8.60%) 대비 △0.35%p 하락하였으나, 최소규제비율(4.00% 이상)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
순자본비율 현황

(단위 : 조원, %, %p)

구 분	'23년말(A)	'24.6월말	'24년말(B)	증감(B-A)	증감률
순자본비율	8.60	8.21	8.25	△0.35	△4.1

4. 손익현황

□ **(당기순이익)** △17,382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, 이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

※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: ('23년말) 54,558 → ('24년말) 70,205억원 (+15,647억원)

주요 손익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23년	'24년
	'23.1~6월	'24.1~6월
당기순이익	860	△17,382